

세계화와 마이너리티 시의 의미 양상 연구*

— 최종천·박후기·하종오의 시를 중심으로

김 흥 진 (한남대)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2) 가혹한 삶의 임계점과 자본권력 비판 |
| 2. 지구적 자본주의와 마이너리티 시의 의미 양상 | 3) 동일성의 폭력과 공동체적 연대 모색 |
| 1) 탈취에 의한 축적과 노동가치의 근원회복 | 3. 맺음말 |

국문초록

아도르노가 주장했듯이 서정시는 그것이 사회적인 것을 거부하는 정도만큼 사회를 반영하는 역사적 산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의 자율성 역시 역사, 사회, 현실적인 토대 위에서 상대적으로 사유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는 2000년대 이후 사회적 상상력을 통해 시적 사유를 펼치는 주요 시인으로서 최종천, 박후기, 하종오의 시를 표본으로 세계화에 따른 마이너리티 시학이 지니고 있는 시적 특성과 의미 양상을 조명하였다.

자본주의 체제의 주변으로 추방당한 마이너리티의 삶의 형식은 임계점에 다다른 비극적 운명에 가깝다. 체제로부터 추방당한 사회적 마이너리티의 삶에 대한 시적 관심은 따라서 불평등과 소외, 억압과 착취, 부조리와 모순, 배

* 이 논문은 2016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제와 차별의 상황을 지시하기도 한다. 본고가 대상으로 삼은 마이너리티와 관련한 사회적 상상력의 시인들은 매우 냉소적이며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태도로 전 지구적 자본주의 질서가 야기하는 인간의 억압과 소외, 부조리와 모순, 배제와 차별, 불평등과 착취, 억압과 폭력의 양상을 비감하게 폭로한다.

본고는 세계화라는 신자유주의의 질서에서 마이너리티들의 삶과 의식이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조명하였다. 그럼으로써 그 시적 의미 가치를 가늠하였다. 그들의 시에서 마이너리티는 유력자의 권력을 드러내면서 체제의 바깥에서 체제의 부정성을 증언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윤리적 반성 과정에서 주체성을 획득하고자 하며, 그 윤리성과 주체성에 입각해 새로운 연대의 틀을 구성함으로써 현대 정치의 중요한 특징인 상징조작에 저항한다.

주제어 : 마이너리티, 세계화, 하위주체, 동일성의 폭력, 배제와 차별, 상상조작, 중심과 주변

1. 머리말

시는 상대적인 자율성에 의거해 이데올로기 실천의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¹⁾ 이를테면 시는 역사, 사회, 현실에 환원되지 않는 상대적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서정시는 역사, 사회, 현실로부터 절대적으로 순수하게 절연된 진공의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 사회, 현실에 대한 무관심이 역설적으로 가장 정치성 짙은 행동이며 사회적 태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문학사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이다.²⁾ 아도르노가 주장했듯이 “한 편의 서정시가 지닌 비사회성이야말로

1) A. 이스툽, 박인기 역, 『시와 담론』, 지식산업사, 1994, 43쪽.

2) 가령 순수 참여 논쟁에서 순수론은 문학의 현실참여 반대라는 사회적 태도를 표

사회적인 것”³⁾이라는 역설처럼 서정시의 내용이 지닌 보편성은 본질적으로 역사 사회적이며 시대적인 것이다. 서정시는 “그것이 사회적인 것을 거부하는 정도만큼 사회를 반영하는 역사적”⁴⁾ 산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의 자율성 역시 역사, 사회, 현실적인 토대 위에서 상대적으로 사유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는 2000년대 이후 사회적 상상력을 통해 시적 사유를 펼치는 주요 시인으로서 최종천, 박후기, 하중오의 시를 표본으로 세계화에 따른 마이너리티(minority) 시학이 지니고 있는 시적 특성과 의미 양상을 조명하고자 기획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문학예술과 현실 사이의 관계성을 소박하게나마 상정한 이래 문학이 현실과 관계 맺는 양상은 다양한 형태의 변용을 거듭해 왔다. 주지하다시피 고전주의에서 현실은 모방의 대상이었다면, 낭만주의 이후 현실은 부정되어야 할 대상이거나 적극적으로 변형해나가야 할 실천의 대상이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의 시문학사 전개에서도 뚜렷이 감지할 수 있다. 우리의 근대사는 제국주의의 침략을 시작으로 질곡과 파행의 과정을 통과해오면서 사회성 짙은 시를 생산해낸 문학적 적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외적으로는 동구 현실사회주의의 몰락과 대내적으로는 문민정부의 출발, 자본주의의 구조변동에 따른 소비 대중문화의 심화와 확산, 세계화와 정보화 사회의 도래 등에 따라 한국 사회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민중문학이나 리얼리즘, 노동문학과 같은 문학의 사회적 상상력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거대담론의 퇴조와 탈이데올로기의 기류가 급속히 파급되는 와중에 마이너리티에 대한 비평적 담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사회적 상상력을 근간으로 하는 민중담론을 대체하며 등장한 개념이다. 이를테면 민중이 피지배계층의 광범위한 연대를 전제로 한다면, 마이너리티는 1990년대 이후 억압과 저

명한 것이고, 그것은 문학이 구체적 현실문제에 접근하기를 금기시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강제력에 일정 부분 동조한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3) 車鳳禧, 『비판미학』, 문학과지성사, 1990, 139쪽.

4) F. 제임슨, 여홍상 • 김영희 공역, 『변증법적 문학이론의 전개』, 창작과비평사, 1984, 47쪽.

항의 경계선이 모호해진 상황에서 체제에서 배제된 자들을 지칭한다. 마이너리티라는 용어를 굳이 번역하자면 소수자라는 개념이 될 것인데, 중심에서 배제되고 지배 체제 밖으로 추방된 이방의 존재들이다. 이들은 다수의 폭력 앞에 소외와 차별, 억압과 배제, 지배와 착취의 대상이라는 실존적 의미를 내포한다. 동시에 소수자는 수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권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예컨대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수적으로 다수이지만 약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반대로 자본가와 같이 수적으로 소수인 지배 계급은 강자로서 권력을 독점한다. 따라서 소수자는 유력자(有力者)와 대응하는 사회적 약소자(弱小者)의 의미를 또한 내포한다.⁵⁾ 특히 세계화에 따른 지구적 자본주의 질서 체제에서 인간적 권리가 배제되거나 박탈된 하위주체(subaltern),⁶⁾ 혹은 비천하고 저주받고 벌거벗은 호모 사케르(Homo sacer)⁷⁾로서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서 마이너리티는 농민, 노동자일 수도 있으며, 남권 권력에 대항하는 여성일 수도 있고, 이주민, 혼혈아, 탈북자, 조선족,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으로 널리 호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학은 다수의 의식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 문화,

5) 오창은, 「지구적 자본주의와 약소자들」, 『실천문학』, 2006년 가을(통권 83호), 322~330쪽 참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창은은 소수자라는 용어 대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통합한 뜻으로 약소자(弱小者)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제안한다.

6)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117쪽.

하위주체는 사전적으로 하층민을 뜻하며, 그람시의 『옥중수고』에서 개진된 개념으로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포괄하면서 성적, 인종적, 계급적, 문화적으로 주변부에 속하는 사람들로 자본의 논리에 희생당하고 착취당하는 대상이다.

7) G.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33쪽.

아감벤에 따르면 호모 사케르는 비오스(bios), 즉 사회, 정치, 문화적 의미의 삶을 박탈당하고 조에(zoe), 즉 생물학적 의미의 삶밖에 가지지 못한 비천하고 저주받고 불결한 존재를 일컫는다.

정치, 인종적으로 다수와 구별되는 마이너리티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한다. 마이너리티 시학은 소수적인 언어로 된 문학이라기보다는 다수적 언어 안에서 생성된 소수자의 문학⁸⁾으로서 고정된 문화적 실체라기보다는 소수화의 역동성으로 끊임없이 탈주하는 문화적 사건⁹⁾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한국 자본주의의 비약적인 발전 과정에서 마이너리티는 스스로 발언하는 주체가 되었고, 특히 세계화라는 지구적인 전일적 자본주의가 속명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저항의 동력을 형성했다. 따라서 마이너리티 시학은 주류를 이루는 지배 이데올로기와 문화 권력의 중심에서 배제되어 주변에 위치한 비주류의 의식, 관점, 태도를 지시하는 발화의 형태를 지닌다. 그러므로 마이너리티 시학은 본질적으로 지배 권력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적이며 비판적인 성격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마이너리티는 자본주의 체제 바깥에서 자본주의의 모순과 부조리를 증언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안과 밖, 중심과 주변, 주류와 비주류, 지배와 소외 집단의 차별 구도에서 마이너리티의 시학은 발생론적 근원을 이룬다.

신자유주의의 질서 체제로 세계가 급속하게 재편 통합되는 세계화 혹은 지구화 현상은 무한경쟁의 시장논리를 보편적 덕목으로 일반화한다. 세계화라는 이름의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로 정착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한 병폐를 초래하고 있음은 뉘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빈부의 격차에 대한 사회적 고민은 항상 있어 왔고, 특히 가난과 소외에 대한 문학적 관심과 고민도 역시 그 강도와 형식은 다르지만 항상 있어 왔다. 한국문학은 소외계층의 가난을 조명함으로써 가난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하고 있음을 형상화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이너리티의 시학은 세계화 시대의 자본주의적 질서 체제,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변화한 삶의 양식과 경험의 형식을 주목한다. 이때 자본주의 체제의 주변으로 추방당한 마이너리티의 삶의

8) G. 들뢰즈 · F. 가타리, 이진경 역, 『카프카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동문선, 2001, 43쪽.

9) 고길철, 『소수문화들의 정치학』, 문화과학사, 2000, 23쪽.

형식은 임계점에 다다른 비극적 운명에 가깝다. 체제로부터 추방당한 사회적
마이너리티의 삶에 대한 시적 관심은 따라서 불평등과 소외, 억압과 착취,
부조리와 모순, 배제와 차별, 억압과 폭력의 상황을 지시하기도 한다.

본고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마이너리티와 관련한 사회적 상상력의 시인들
은 매우 냉소적이며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태도¹⁰⁾로 전 지구적 자본주의 질
서가 야기하는 부정적이며 폭력적 양상을 비감하게 폭로한다. 따라서 본고는
세계화라는 신자유주의의 질서에서 노동 조건의 변화와 계급의 분화로 새로
게 생성된 마이너리티들의 삶, 특히 노동자 하위주체의 삶과 의식이 어떻게
형상화되는지를 최중천, 박후기, 하종오의 시를 대상으로 조명함으로써 그
시적 의미 가치의 형질을 탐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에서 마이너
리티는 유력자의 권력을 드러내면서 체제의 바깥에서 체제의 부정성을 증언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윤리적 반성 과정에서 주체성을 획득하고
자 하며, 그 윤리성과 주체성에 입각해 새로운 연대의 틀을 구성함으로써 현
대 정치의 중요한 특징인 상징조작에 저항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서 2000년대 이후 사회학적 상상력을 위주로 하는 시가 지녀
왔던 문제의식의 재현 방식과 시적 의식의 양상이 조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지구적 자본주의와 마이너리티 시의 의미 양상

1) 탈취에 의한 축적과 노동가치의 근원회복 : 최중천

10) 민중문학 계열의 시가 지닌 냉소, 비판, 저항의식은 계급과 체제를 문제 삼으며
궁극적으로는 텍스트라는 언어체 밖으로 나가 물적 토대의 해체를 꿈꾸었다면,
황지우 이후 유희 등 모더니즘 계열의 시가 보여준 문학적 실천은 규범적 문학
의 소통 체계에 대한 전복적인 반성 작업으로 언어체 안에서 구조와 문법을 문
제 삼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리얼리즘 계열 시의 냉소적이며
비판적인 의식은 모더니즘이나 키치 문학 등과 일정하게 변별된다.

최종천의 시는 신자유주의 질서 체제로 세계가 급속하게 재편 통합되는 지구화 현상과 근대에 대한 성찰의 분위기, 특히 그러한 상황에서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성찰한다. 최종천의 시는 후기자본주의적 질서와 체제,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변화한 삶의 양식과 경험의 형식, 특히 변화한 노동환경을 주목한다. 그에게 지각되는 경험세계로서의 삶의 형식은 자본주의적 현실원칙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 삶의 비극적 운명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은 교환가치, 즉 자본으로 환원될 수 있는 중요한 세목이다. 우리는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비정한 시장논리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교환가치를 개발해야 하고 확대 갱신해야 하며, 변화의 속도에 적응해야 한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질서의 확대에 따른 우리의 삶과 운명에 대한 최종천의 시적 탐구는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교환가치를 상실한 마이너리티가 처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도태와 소외의 상황을 환기한다. 그는 매우 냉소적이며 비판적인 태도로 자본주의의 질서에서 도태되는 양상을 비감하게 환기하면서 물화된 노동의 가치와 생명을 회복하려 한다.

환경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와 재앙이 / 노동계급의 투쟁과 어찌 다른 것이라 / 자연은 오염으로 항거하고 / 노동계급은 파업으로 자본에 대항한다. / 자연과 노동의 투쟁의 대상은 동일한 것이다.

「어떻게 다를까?」 중에서

인용 시는 최종천의 시가 발원하는 지점을 선명하게 지시한다. 시인에게 “자연과 노동의 투쟁의 대상은 동일”한 것처럼 자본의 노동착취나 인간의 자연착취 또한 동일한 논리의 구조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의하여 그의 시는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복원하고 자연 생명의 본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정신에서 출발한다. 신자유주의 체제로 재빠르게 재편된 질서 아래에서 지배와 착취의 구조는 예전보다 더욱 공고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우리를 억압한다. 자본의 힘과 논리는 빠른 속도로 일상을 장악해 나가고 있으며, ‘신자유주의는 탈취(奪取)에 의한 축적의 시스템¹¹⁾을 추구하는 경제구조 속에서 “온통 不具인 삶을 보여주는 것이”(「춤 위하여」) 최종

천의 시이다. 그는 이러한 자본주의적 질서가 필연적으로 배태할 수밖에 없는 모순과 부조리, 착취와 폭력의 구조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실천의 윤리를 전경화한다.

자본주의의 탈취에 의한 축적의 시스템은 결국 “강한 사람은 더욱 강하고 약한 사람은 더욱 약하고 /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과 함께 도태되어”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먼 미래에는 강한 자들만 살아남아” 마이너리티의 “二世들은 그들 포식자들의 소모품으로 제공”될 것이라는 비극적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적자생존의 진화론적 법칙은 분명 착취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원리와 노동자로 대변되는 약소자의 “슬픈 운명”(「슬픈 운명의 노래」)의 구조에 대한 해부학적 비판이다. 이러한 비판적 인식의 연장선에서 다음과 같은 시는 착취의 구조 속에서 인간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제시한다.

공장장만 빼고는 일하는 사람 모두 장가를 못 간 / 노총각들이어서 그런지
고양이 사랑이 엄청 크다. / 자본주의가 결혼하라고 할 때까지 / 부지런히 돈을 모으는 상중이가 밥 당번이다. / 밥을 주면 수컷이 양보한다. / 공장장은 한때 사업을 하다 안되어 / 이혼을 했다지만, / 내가 보기엔 자본주의가 헤어지라고 하여 / 헤어진 것이 틀림없다. / 사람의 새끼를 보면 은근히 한숨만 터지는데 / 고양이의 새끼를 보면 은근히 후회하는 것이다. / 사람인 나는 못하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고양이의 마술이다.

「고양이의 마술」 중에서

인용 시는 자본주의의 질서 체제와 문화에 대한 비판이 여실하게 드러나며, 물화(物化)된 세계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사물을 닮아가는 현상을 물화라 일컬었다. 자본주의는 진선미나 사랑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 그리고 결혼과 같은 인륜마저도 교환가치로 환원시킨다. 때문에 “부지런히 돈을 모으지 못하면” 결혼조차 할 수 없다. 어느 공장의 노동자로 보이는 화자는 고양이가 “새끼를 여덟 마리나 낳”은 것

11) D. 하비, 최병두 옮김, 『신자유주의』, 한울, 2007, 194쪽.

을 보고는 그것을 노동자인 자신으로서는 꿈도 못 꾸는, 자신의 처지로서는 실현할 수 없는 신비한 마술로 인식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는 상층에 축적되지만 위험은 하층에 축적된다.”¹²⁾는 전언을 실감케 하는데, 그것은 동물의 본성적 사랑과 출산을 노동자인 자신은 엄두도 못내는 신비한 마술로 보기 때문이다.

화자는 약소자에 위험이 축적되는 원인을 물신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질서에서 찾는다. 말하자면 “일하는 사람 모두 장가를 못 간” 이유가 “자본주의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장장이 이혼한 것도 기실 “자본주의가 헤어지라고 하여 / 헤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화자는 “사람인 나는 못하는, 시집가고 장가가”서 새끼를 낳고,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고양이”를 보며 그것을 인간 세상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신비한 마술로 보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화자는 노동/생산이라는 근대적 가치의 바깥에서, 적자생존의 자본주의 시장 한복판에서 교환가치를 상실한 채 인간으로서 자연스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불구적 삶을 통해 다소 직설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이다. 자본주의 문화가 지닌 부정성의 대척점에는 모성의 생산성과 자연의 본성과 노동의 신성성이 자리한다. 그는 이러한 대척점에 자리한 근원적 가치의 회복을 궁극적으로 희망한다.

최중천은 자본주의적 질서가 강제하고 물화된 문화가 파생하는 온갖 부조리와 폭력, 억압과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자연과 모성과 노동의 신성성을 회복하는 지점으로 나아간다. 시인은 알몸의 자연과 알몸의 노동과 알몸의 여성이 지닌 원초적 동식물성의 세계로 나가고자 한다. 가령 볼트를 용접하는 일을 “볼트를 심”는 행위로 은유하며, “노동은 인간의 광합성이다.”(「볼트를 심다」) 혹은 “자연에서의 식물과 같이 노동계급은” “인간 세계의 최초 에너지 생산자”(「노동이 인간의 光合成이다」)라고 식물화하는 것, “자연은 모두 알몸”으로 “알몸만큼 황홀한 것은 없”(「진정한 司祭」)이며 “빨갱이, 목사, 거지, 공산주의자, 자본가를 / 가리지 않고 벗기”(「성(性) 앞에 평등하라」)는 알몸의 창녀를 사제(司祭)나, 노자의 『도덕경』 제6장

12) U. 벡, 홍성태 역, 『위협사회』, 새물결, 1997, 75쪽.

에 나오는 구절 인용하여 자연의 생명 창조를 “여성의 자궁”(「母系社會」)에 비유하는 것들은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 이러한 의식은 “그놈의 이성인지 똥인지 버리고” “두고두고 동물처럼 / 사물을 대하고 싶”(「보랏빛」)다는 고백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근대의 기획이 획책하는 세계관, 말하자면 인간의 이성을 세계의 중심에 세워 자연을 타자화하고 지배하는 억압적 논리를 배격하고 자연의 순수 감각으로 사물을 대하려 한다. 시인은 이성과 과학 기술의 사유에 의해 야만과 원시로 치부되어온 이러한 동물적 본성과 감성의 회복이야말로 상처받은 지구와 생명의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성에 대한 회의와 불신은 근대 자본주의적 문명을 비판하는 시에 잘 나타나 있다. 이를테면 근대의 기획, 이성적 주체의 확립, 인간의 이성에 의한 자연의 지배, 사물의 타자화로 범박하게 말할 수 있는 데카르트의 명제를 비판하는 대목에서 잘 나타난다. 예컨대 “지식의 최종 목표는 자연의 힘에 대한 인간의 지배”라는 데카르트의 기본 명제를 인용 비판하며, 그 반대편에서 자연은 “하나님의 언어”이며 신은 “자연을 통하여 인간에게 말하고 있다”거나 “인간이 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것도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된다.”(「데카르트의 迷宮」)는 의식은 바로 자본주의적 문명과 인간의 이성에 대한 불신의 극단을 드러내는 것이다. 시인에게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인간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포식하고 낭비”(「성공하고 싶으세요?」)하며 쓰레기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듯 근대 자본주의 문명이 부추기는 미래적 가치와 희망의 논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그리하여 모든 문화적 생산자와 생산물들, 예컨대 자연과 노동과 모성의 생산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시와 시인을 포함한 “예술가들, 종교, 철학, 은행가들”은 모두 착취의 포식자이며 소비자이다. 시인은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지구를 회복”하는 길은 “자연과 노동에 대한 착취”(「소비자는 왕이다」)의 먹이사슬을 끊고 자연적 본성의 세계로 지향해 나가길 희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성의 세계는 다음과 같은 시에서,

관작집이 뼈격거리는 소리는 형과 누나가 / 네발 달린 짐승이 되어 사랑하는 소리였던 것이다. / 사랑이고 뗏이고를 떠나 나는 그들의 그런 몸놀림을 긍정했다. / 사랑의 몸짓에는 누구든 네발 달린 짐승으로 퇴화한다. /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선 우리는 문명으로부터 도망쳐야 하리라.

「네발 달린 짐승이 되어」 중에서

라고 노래할 때 그 시정신의 극단은 드러난다. 이 시는 마치 ‘동물되기’¹³⁾를 연상시키는데, 그것은 시인이 자연과 노동과 모성의 본성이 회복된 세계를 꿈꾸며 인간이 “네발 달린 짐승으로 퇴화”한 문명 이전의 본원적 세계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 세계는 자본주의의 직선적 시간이 아니라 순환론적인 원시적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시간은 직선이 아닌 여성적 곡선과 영속적 생명이 창조되는 곡신(穀神)의 세계이며, 인간중심의 이성애에 의해 인위적 조작이나 분별이나 분배가 아닌 동물적 본성이 오롯이 보존된 영원의 동일성의 시간이다. 시인은 “인간은 비영속적인 존재인데 동물은 영속적인 존재”(「詩, 너 누구냐?」)라고 진술하는 것처럼 자연을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문명으로부터 도망쳐” 동물되기를 희원한다. 시인은 이러한 원시적 생명성이 존재하는 동물되기를 통해 인간과 자연, 주체와 대상 사이의 분절과 분리와 분열을 극복하고 생명의 근원적 영속성과 동일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는 궁극적으로 “자연에 순응하는”(「작가수첩」) 노동의 근원적 세계를 건설하고자 한다.

한 시대를 비추던 계몽의 등대는 그 견인의 빛을 잃고, 우리를 이끌던 이념의 깃발은 철거되었다. 바야흐로 억압과 저항의 경계선은 흐릿해지고 ‘전선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누가 적인지 알 수 없는 혼돈의 세상에서 더 이상 정치적 당파성으로 무장한 민중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는 사례로 최중천의 시가 자리한다. 특히 그의 시는 문학의 사회적 상상력과 비판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그가 펼쳐 보이는 세계를 따라가면 자본주의의 착취의

13) G. 들뢰즈 · F. 가타리, 김재인 역, 『천개의 고원』, 새물결, 2001.

시스템을 파헤치고, 자연과 모성과 노동의 신성성 회복을 통한 근대적 가치의 전복을 꾀하려는 전략을 만날 수 있다. 그의 시에서 다소 거칠고 선전적이며, 계급적이고 정치적인 당파성의 직설적인 외침을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나의 시는 예술이기를 포기한다.”(「나의 시」)는 선언적 명제에도 불구하고 생활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시적 울림을 통해 스스로 발언하는 주체로서 저항의 동력을 생성한다. 그런 점에서 지구적 계급으로서 자본가 계급을 강화하는 체제에 저항하는 주체의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혹한 삶의 임계점과 자본권력 비판 : 박후기

전망 없는 미래, 역사의 진보에 대한 깊은 회의와 불신, 미래에 대한 어떠한 기대나 희망도 내비치지 않는 도저한 체념과 무력감, 깊은 비판과 회의적 태도를 보이는 박후기의 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포함한 현재적 삶의 현주소를 지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도무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과 미래에 대한 시인의 처절한 망연함이나 절망감의 표현이다. 이러한 마이너리티의 수사학은 역설적으로 자본의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풍자이며 비판으로 읽힌다. 존재의 기반을 송두리째 뿌리 뽑힌 추방된 이들의 형편없는 삶에 대해 쓰는 박후기의 시는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과 삶의 현재적 보여주기이며, 동시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래할 불길한 미래상(像)을 환기한다.

박후기의 시에서 주된 시적 발상은 ‘지옥의 링’ 위에 선 복서의 삶이다. ‘지옥의 링’은 자본주의적 현실의 장으로서 그 축소판이다. ‘링’은 유형지로서 처절한 삶의 비등점이며 임계점이다. ‘링’ 위에서의 삶은 “그로기 상태에 빠”져 “녹아웃 댄”(「복서 2」) 형국이고, 현실과 미래는 출구가 보이지 않아 “막막하고 두려”(「복서 3」)울 뿐이다. 현실은 ‘링’이고 ‘지옥’이다. ‘링’이라는 장소는 시의 무대이자 시를 주도하는 분위기이다. 시인은 ‘링’을 사회의 축소판으로 상징하고, 이 안에서 펼쳐지는 복서로서의 처절한 삶을 비감하게

펼친다. 말하자면 ‘링’을 중심에 놓고 체제 밖 변방에 내동댕이쳐진 처절하고
암울한 삶을 이 안으로 끌어들인다.

꼭두새벽 집을 나서는 엄마는 / 정류장까지 로드워크를 한다 / 아버지가 녹
아웃된 후 / 대신 엄마가 장갑을 끼고 매일 / 지옥의 링 위로 올라간다 // 아
들 3은 / 품속에 카운터블로를 숨긴 채 / 결정적인 순간이 / 오기만을 기다린
다 / 달과 엄마처럼 / 숨죽이며 참고 견딘다 // 탐색전이 지나치면 / 식구들의
야유를 받는다 / 나가 싸우지 않는 아들 3을 향해 / 아들 1이 경고를 보낸다 /
도대체 / 누가 적(敵)인지 알 수 없는 세상이다 // … 중략 … // 때리는 자와
맞는 자, / 누구를 위하여 좋은 울리나? / 그로기 상태에 빠진 생이여 / 너에게
확, / 수건을 던지고 싶다

「복서 2」 중에서

박후기의 시는 가혹한 삶의 임계지점에서 펼쳐지는 유형지의 리얼리즘이
다. 유형지의 그들에게는 저주받은 소외와 가난, 고통과 눈물이 있지만 이전
시대처럼 계급적 정체성이나 정치성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체제에서 배제되
어 변방으로 유랑하는 사회적 마이너리티들의 모습은 “세상 끝 저편에 / 혼
자” 위태롭게 “매달리는 일만 남았”(「목련 출처」)을 뿐이며, “지옥의 링
위”에서 “그로기 상태에 빠진 생”에게 “확, / 수건을 던지고 싶”은 절망스러
운 현실만이 있을 뿐이다. 현실은 절망적이고 앞날은 이미 “바코드로 찍혀
있”어서 “계산할 필요”도 없고, “바꿀 수”(「아르바이트 소녀」)조차도 없는
운명인 것이다. 그의 시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체제의 밖으로 내동댕이쳐진
마이너리티들의 저주스러운 고통의 현실과 삶, 말하자면 ‘지옥의 링 위’의 삶
만 있을 뿐 정치적이거나 또는 미적 저항이라 할 만한 어떠한 태도도 찾아
볼 수 없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희망 없이, 역사의 진보에 대한
전망이나 확신 없이 유령처럼 체제 밖을 떠돌며 그저 하루하루치의 삶을 간
신히 살아내는 마이너리티의 곤궁한 현실을 그려낼 뿐이다.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복서’로서 ‘땀집’ 하나로 ‘지옥의 링 위’에서 살아가는 절망스러운
모습만 있을 뿐이다.

박후기의 시에서 노동/생산이라는 근대적 가치의 바깥, 말하자면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교환가치를 상실한 채 주변을 떠도는 추방된 자들은 유행화되어 유형지의 삶을 살아간다. 중심의 주변은 유형지이고 삶의 임계점이다. 삶은 바로 “지옥의 링” 위에서 펼쳐진다. 그 희망 없는 삶의 비등점, ‘지옥의 링’에서 박후기의 시는 펼쳐진다. ‘지옥의 링’ 위에 선 그들의 이름은 비정규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편의점이나 주유소나 대형마트의 알바,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하지만 그들을 정치적이며 계급적인 정체성을 지닌 예전의 노동자로 부르는 것은 다소 어색하다. 노동자라는 특정한 이름은 노동 주체의 계급적 정체성과 노동/자본의 억압적 불평등에 저항하는 집단적 주체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노동이란 서로 상이한 조건과 환경의 분화 속에서 개체적으로 분열되고 파편화되었다. 이러한 노동환경의 지형변화에 따라 노동자는 그 계급적 정체성과 집단적이며 정치성을 드러냈던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단지 그들은 자본 시장에서 선택되지 못함으로써 자신들의 노동력을 내다 팔 기회를 잃은 사회적 잉여일 뿐이다. 계급적 자의식을 상실한 채 자본시장에서 폭력적으로 배제된 추방자, 사회적 잉여인간일 뿐이다.

박후기의 시가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소외된 변두리 잉여인간들에 대한 시적 공감은 마치 ‘종이는 나무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처럼 소외와 가난이라는 사회적 유전자에서 비롯한다. 그가 “우리 집에 힘센 것은 / 하나도 없”고 “힘센 것은 모두 우리 집 밖에 있다”(「뒤란의 봄」)고 진술할 때, 운명처럼 주어진 가난은 다름 아닌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이미 주어진 것이다. 즉 거부할 수조차 없는 막강한 자본의 힘과 구조가 물려준 불치의 사회적 유전병 같은 것임을 지시한다. 예컨대 그의 시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가족 구성원 가운데 아버지의 삶이 그러하다. 아버지는 언제나 “쓰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꺾”(「자전거를 배우는 아버지」)고, “앞만 보고 살았지만, 언제나 뒤가 무너”(「폐광」)지는 몰락의 삶을 산 비극적 인물이다. 아버지는 “무덤 속에서도 / 빛 독촉을 받”(「화분 요람」)는, 그러니까 죽어서조차도 자본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거나 자유롭지 못한 운명이다. 이렇듯 “무너진 집안의 막내”(「채송화」)로 태어난 태생적 몰락의 운명, 그 유전의 세습, 혹은 과거의

기억과 흔적의 유전은 박후기 시에서 시적 주체의 현재와 과거를 강력하게 규제한다. 그 과거의 기억, 검은 지층처럼 켜켜이 쌓인 아픈 흔적의 유전자는 시적 주체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간섭하고 규제하는 규정력을 행사한다.

앞날 흐릿해 / 힘주어 눌러 쓰면 / 뒷장에 배기는 흔적들, / 어찌면 나는 /
흔적을 따라 / 살고 있는지 모른다

「흔적들」 중에서

박후기의 시에서 마이너리티로서의 과거의 흔적들은 현재로 반복되고, 또 그것은 미래의 운명까지 결정해버린다. 이러한 아버지의 전망 없는 삶, 그 아픈 운명의 굴레는 아버지나 어머니, 어느 한 집안의 가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존재론적으로 확대되어 있다. 아버지의 운명은 그의 시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철거민, 노숙자, 불법체류자, 해고노동자 등의 삶과 겹치면서 그들의 삶에 그대로 중첩 전사되어 있다. 이들 마이너리티들은 아버지의 다른 얼굴이며 삶이다. 과거에서 현재,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유전되는 가난한 삶의 전사는 “집안을 걸돌며 눈치만 살”피는 실업자 아들(「복서 3-오빠」), “이력서를 들고 / 링 위에 올라가 춤을” 추는 비정규직 누나(「누나」), “녹아웃 된” 아버지 대신 “매일 / 지옥의 링 위로 올라”(「복서 2」)가거나 막막한 “세상 끝 저편에 / 혼자 / 매달리는” 엄마(「목련 출처」), “몰락한 집안의 기둥”이며 “지방 원정경기도 마다하지 않”는, “믿을 것은 맷집밖에 없”으며 “대기실에서 청춘을 보낸” 시간강사 오빠(「복서 3」), 엄마 아빠의 역할조차도 아르바이트로 생각하는 아르바이트 소녀(「아르바이트 소녀」)에 그대로 전사되어 있다. 그들에게 현실은 “지옥의 링”이며 삶은 “확, / 수건을 던”져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로기 상태에 빠”(「복서 2」)져 있는 것처럼 처참하다.

자본주의 체제의 변두리이자 사회의 밑바닥을 희망 없이 전전하는 이들의 삶에서 희망이나, 저항의 의지나, 전환의 반전이나, 또는 어떤 공동체적 연대 의식 같은 것들은 찾아볼 수 없다. 그의 시에서 이들은 오직 체제 밖으로 쫓겨난 추방자로서의 아픔과 슬픔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들은 모두 체

제의 사생아일 뿐이다. 그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 자본의 공명을 위해 매인 몸”(「6번 혈관-콜트기타 해고노동자들에게」)으로 “모두 난간 위”(「난간에 대하여」)의 위험한 삶을 살아간다. 예컨대 “세상 끝 저편에 / 혼자 / 매달”(「목련 출처」)려 있다가 언젠가는 떨어져 몰락할 운명에 처해 있으며, “지옥의 링 위”에서 “녹아웃”(「복서 2」)될 비극적 운명의 존재들이다. 이와 같은 몰락의 이미지는 “떨췌하던 몸 물먹은 소금처럼 녹아내”(「소금한 포대」)리거나, “물살에 휩쓸리며” “우리도 얼굴을 지우며”(「내린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죽음과 소멸의 비관적 계열의 의미들을 거느리며, 동시대의 보편적 운명으로 확장된다. 삶과 세계는 절망적이며 비관적인 것이고,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는 동시대의 마이너리티가 지닌 보편적 운명이다.

나는 아르바이트 소녀, / 24시 편의점에서 / 열아홉 살 밤낮을 살지요 // 하루가 스물다섯 시간이면 좋겠지만 / 굳이 앞날을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 이미 바코드로 찍혀 있는, / 바꿀 수 없는 앞날인 걸요 // ...중략... // 가끔은 내가 / 아르바이트를 하러 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 엄마 아빠도 힘들게 / 엄마 아빠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르바이트 소녀」 중에서

화자는 “24시 편의점”에서 “열아홉 살 밤낮을” 사는 “아르바이트 소녀”이다. 열아홉 살의 젊디젊은 아르바이트 소녀에게 현실은 암울하고 미래는 없다. 다만 희망이 있다면 “아르바이트는 / 죽을 때까지 하고 싶”다는 바람 뿐이다. 그녀는 “굳이 앞날을 계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절망적이다. 그녀는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이 세상에 온 것 같”으며, 자신의 “엄마 아빠도 힘들게 / 엄마 아빠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앞날은 이미 “바코드로 찍혀 있는” 것이어서 “계산할 필요”도 “바꿀 수”도 없이 미리감치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녀의 애인도 처지는 마찬가지이다. 그들에게는 사랑조차도 “컵라면 같은” 것이어서 “가슴에 뜨거운 물만 부으면 삼 분

이면 끝나”버리는 것처럼 짧은 시간 밖에 주어지지 않으며, 어떠한 인간적 정감도 배어 있지 않은 무감각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랑도 결국 / 사람과 무관한 일”(「복서 2」)이 되어버린다.

박후기의 시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 반전에 대한 믿음, 삶에 대한 열정 같은 것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의 시에서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절망이 있고 현재를 반복할 불길한 미래의 전망이 있을 뿐이다. 그의 시는 가난이라는 형벌 같은 피의 유전, 세습의 신분처럼 물려 받은 비루하고 비천한 삶의 극복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비등점까지 끌어 올린다. 그럼으로써 은유적으로 제시한 지옥 같은 ‘링’ 위의 출구 없는 삶은 지금 이곳의 폭력성을 환기한다. 남루하고 암울한 현실의 주소는 오랫동안 우리의 거처로 머물고, 박후기의 시에서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은 없다. 그의 시는 ‘지옥의 링’으로 환유된 모순의 현실을 보여줄 뿐, 이를 바로잡고 또 부조리의 시스템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그 모순과 부조리의 현실을 경험하게 한다. 시인은 ‘링’ 위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삶의 과정들을 주시하고 그 불완전함, 그 부조리한 모순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한다.

3) 동일성의 폭력과 공동체적 연대의 모색 : 하종오

초국적 자본에 의한 세계화 전략으로 값싼 노동력을 따라 자본이 이동하고, 이 자본을 따라 제3세계 하위주체들의 이산(離散)을 생산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중심주의적 식민담론은 성적, 인종(민족)적, 계급적, 문화적, 경제적 차이를 중심으로 중심과 주변이라는 지형을 생성해낸다. 중심에서 배제된 이들 하위주체들은 민족중심주의의 담론에서 객체화되고 대상화된 타자로 주변부에 위치한다. 그들은 인종(민족)적 정체성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민족국가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타자로 대상화되면서 비표준적이고 비문화적으로 비유된다. 이러한 비유는 그들이 연약하고 미개하다는 은유적 사고를 발동시키며, 그들을 주변부의 하위주체로 위치시킨다. 하종오는 이러한 은유화와 대상화의 과정을 통해 타자를 결정하는 오리엔탈리즘, 즉 서구중심

의 식민담론의 기획에서 벗어나 이를 탈중심화하려는 시적 의도를 전략적으로 펼친다.

하종오의 시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질서의 재편과 경제적 위상의 향상,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이주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등으로 파생하는 문제에 적극적인 시적 관심을 보인다. 세계화와 초국적 자본의 흐름에 의한 국경의 와해는 세계 곳곳에서 보편적으로 경험되는 사회현상이다. 이러한 현실을 주목하는 하종오의 시는 “새로운 국제주의의 인구학은 탈식민지적 이주의 역사이자 문화적 정치적 이산의 서사”라는 “망명의 시학”¹⁴⁾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종오 시인이 주목하는 타자로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조선족, 그리고 혼혈인의 삶에는 약소자(minority) 내지는 이방인, 특히 경제적 약소국 출신으로서 “봉급 한 푼도 못 받고 / 즉각 쫓겨”(「위험한 키스」)날 수밖에 없고, “몽둥이에 맞아 쇠골이 부러”(「무로 진료」)질 수밖에 없는 고통과 사회적 멸시가 자리하고 있다.

시간 되자마자 퇴근하는 필리피노 하나/다음 퇴근하는 스리랑칸 하나/그다음 퇴근하는 타이랜더 하나/개 잡아먹으러 빨리 간다고 두들겨 뺐다 // 그 이튿날 아침 / 공장장이 몽둥이 들고 공장 문 앞에서 있다가 / 시간 지나서 출근하는 필리피노 하나 / 다음 출근하는 스리랑칸 하나 / 그다음 출근하는 타이랜더 하나 / 개 잡아먹고 늦게 나온다고 두들겨 뺐다

「초복」 중에서

인용 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이유 없는 폭력과 멸시의 실태를 그리고 있다. 시적 상황은 “사나운 개가 공장 문 앞에 매여 있어서” “동남아인 노동자들이 출입”할 때는 “공장장이 목줄을 잡아주어야” 드러누울 수 있다. 그런데 초복 날 “한낮에 그 개가 사라”지고 공장장은 동남아 노동자들이 그 개를 흠쳐갔다고 생각한다. 공장장은 퇴근하는 그들을 “개 잡아먹으러 빨리 간다고 두들겨” 때고, “그 이튿날 아침”에는 출근하는 그들을 “개

14) 호미 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사, 2002, 33쪽.

잡아먹고 늦게 나온다고 두들겨” 팬다. 그러나 사실은 “이썬시개로 이빨 썬 시고 찹찹거리며” “한낮에 고급승용차 타고 온 사장이” 잡아먹은 것이다. 하종오의 시에서 신자유주의의 ‘국경 없는 공장’ 시대와 ‘아시아계 한국인들’의 삶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유형지’에서의 삶이다. 호미 바바는 ‘사이에 낀 (in-between)’ 공간에서 생성되는 문화적 차이는 주류문화의 불완전한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위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한다.¹⁵⁾ 이러한 문맥에서 냉정한 무관심에서 돌연한 공포심이나 적개심으로 변하는 이방인에 대한 반응은 이주외국인의 주변성에 잠재된 위협적 성격을 유추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은 정상성, 즉 동일자의 정체성이 갖는 억압적 성격이 폭로되는 것이다.

초복 날 공장을 지키던 개가 없어지고 공장장이 동남아인 노동자들을 두들겨 패는 시적 문맥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열등한 국가의 국민에게 가해지는 배타적이며 모멸적인 차별의 논리이다. 여기에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폭력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약소국가의 출신에게는 가능하다는 식민적 배타의 논리가 흐르고 있다. 그들에게는 “공장장이 목줄을 잡아주어야” 출입이 가능한 것처럼 최소한의 자유조차 보장되어 있지 않다. 동남아인 노동자들은 공장장이 개의 “목줄을 잡아주어야 / 출입이 가능”한 것처럼 최소한의 이동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한다. 여기에는 동일자의 경제적 식민의식과 인종적 우월의식, 그리고 자본의 탐욕스런 논리가 중첩되어 있다. 산업화 시대 노동력을 수출해야만 했던 우리가 혐오했던 식민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인데, 화자는 이를 통해 우리 사회 내부에 흐르는 차별과 배타의 논리를 반성적으로 성찰한다.

배제와 차별의 논리 저변에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적 하위주체 담론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아시아계 이주노동자들을 서구의 제국주의가 식민지 아시아를 이미지화한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인종적 특성이 한국인과 이주노동자의 차이를 가르는 중요한 고리로 부각되는 것은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약소자이면서 경제적 주변성을 갖는 위치와 관련을 맺고 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가 한국인에 비해 열등하다고 상상적으

15) 호미 바바, 나병철 역, 앞의 책, 36~39쪽 참조.

로 관념화될 때 더욱 그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그래서 “머리를 소중하게 여겨서 / 모자를 즐겨 쓴다는 걸 / 공장장은 잘 알면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주먹으로 정수리를 내리”치는 “손찌검”(「머리」)을 서슴없이 자행하게 만든다. 여기에는 우월성에 바탕한 인종에 대한 폭력적 은유의 방식이 작동하고 있으며, 서구적 근대주의가 강요한 문명/야만의 도식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인용 시에서처럼 그들은 상상적 관념조작에 의해 열등하고 범죄적인 인종으로 인식된다. 그 결과 ‘민족적 순혈주의를 초자연적 실재’ 내지는 ‘유일한 세계 인식의 틀’¹⁶⁾로 전제한 나머지 그들을 내부로부터 배제한다.

네팔에선 돼지 주인이 막대기 잡고 / 등도 배도 목도 밀며 우리로 몰아 넣어도 / 돼지가 말 듣지 않는다고 머리를 후려갈기진 않았다 / 공장장은 제가 한 일이 잘못되어도 / 눈 찌리며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 혀 차며 손가락으로 이마를 찌르고 / 소리지르며 주먹으로 정수리를 내리쳤다
「머리」 중에서

인용 시는 경제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물리적 폭력과 빈손으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굴욕’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네팔리는 머리를 소중하게 여겨서 / 모자를 즐겨 쓴다는 걸/공장장은 잘” 안다. 그럼에도 공장장은 “걸핏하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 때나 머리를 밀고 때린다. “공장장은 제가 한 일 잘못되어도” “혀를 차”며 “뒤통수를 때리고” “소리지르며 주먹으로 정수리를 내리”치는 폭력을 일삼는다. 그러나 네팔리 “청년은 빈손으론 네팔로 돌아갈 수 없어 / 공장장의 손찌검을 받으며 일”해야 한다. 그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약소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무시와 멸시의 대상이다. 이러한 물리적 폭력은 그들을 미개하고 열등한 존재로 여기며 관리하고 길들여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론적 폭력이 자리한다.

‘네팔리’라는 타자에 대한 폭력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열등하다는 이념적

16)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소나무, 1999, 53~55쪽 참조.

편견의 결과에 의한 것이다. 타자의 이질성에서 생겨난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화하는 동일성의 논리는 그들이 열등하고 미개하며,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동일자의 일방적 시선에 의하여 그들을 끊임없이 관리하고 감시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의식은 근대화의 기치 아래 이루어낸 산업화의 경험과 피억압자로서 제국주의적 질서를 내면화한 경험과 연관되어 있으며,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서구 중심의 관점으로 이주노동자를 타자화하고 사물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외국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이중적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인종적 특성과 결부된 유색인종에 대한 우월감은 백인/유색인이라는 차이를 사회적 차별로 귀결시키고, 산업화의 정도에 따라 선진/후진, 혹은 문명/야만이라는 분리를 통하여 폭력과 억압을 구조화한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인종적이며 경제적인 권력관계는 중심의 위치에서 유색인종을 주변으로 위치시키고 그들을 사물화한다. 그 결과 사물화된 대상에 대한 폭력은 정당화된다.

하종오의 시는 사물화된 대상으로서 이주외국인 하위주체에 대한 폭력의 실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즉 인식론적 편견과 우월감을 바탕으로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과 그것이 정당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타자의 타자성을 거세하는 동일성의 인식론적 폭력은 이주외국인 하위주체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신체는 물론 인격까지도 소유 가능하다는 의식을 생산해낸다. 민족 사이에는 많은 문화적 차이가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는 타인종에 대한 폭력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는 인식론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한 동일자의 시선이 작동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차별과 배타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 의식이다. 하종오는 이러한 동일자의 정체성이 갖는 억압적 폭력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새로운 연대의 틀을 모색한다.

베트남에서 시집은 어머니와 /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내아이와 / 필리핀에서 시집은 어머니와 /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계집아이가 / 들관에서 뛰어놀고 있다 /... 중략 .../ 베트남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에게 / 사내아이가 쌀밥 지어 올리는 날이 되면 / 필리핀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에게

/ 계집아이가 나물반찬 차려 올리는 날이 되면 / 들판에서 다른 주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코시안리 13」 중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 자본과 인구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복합적인 초문화화의 현상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우리 사회는 다민족·다문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종오 시는 우리 사회에 새롭게 편입된 이주노동자나, 인용 시에처럼 결혼이주여성, 그들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이 함께 공동체적 삶을 꾸려나가는 연대를 꿈꾼다. 위의 시에서처럼 화자는 동정과 연민, 배제와 차별이 아닌 “베트남 처녀 데려와 장가” 들고, 그들 가족이 “남편들의 나라 한국에서” “자손 대대로 이어갈”(「진후」) 공동체적 연대를 희망하는 것이다. 이것은 편협한 주체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타자의 차이와 이질성에 대한 인정의 윤리를 동반할 때 가능한 것이다.

하종오는 “어떤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유랑민이 되어버리”고, 또 어떤 이는 “한국을 출국하는 순간 다시는 딛고 싶지 않은 국가로 여기지 않”는 현실에서 “이 땅에 남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들과 함께 건강한 자본주의적 삶을 살이”(「자서」)하기를 희망하는 진정한 공동체적 연대를 모색한다. 베트남 여자와 한국인 남자, 필리핀 여자와 한국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들판에서 뛰어놀고, 마침내 그 들판의 주인이 되는 공동체를 꿈꾸는 것이다. 그것은 단일 민족국가라는 순혈주의가 지닌 피의 맹목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이며, 배제와 차별이 아닌 이질성이 지닌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이다. 그럼으로써 시인은 식민적 사유를 벗어나 탈식민적 사유와 차이에 대한 윤리적 가치를 창출한다.

3. 맺음말

파행적 근대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끈질긴 변혁운동을 경험하였고, 그런

흐름을 반영하여 한국 현대시는 억압적인 상황과 체제 내의 순응주의 미학을 거부하는 사회적 상상력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를 전후로 전시대와는 다르게 퇴조한 면모를 보인다. 그것은 대내적으로 문민정부의 출현과 대외적으로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신자유주의라는 전일적 자본주의 체제로 재편된 세계 질서의 변화와 연관성을 지닌다. 대내외적 환경의 지각변동에 의하여 문학의 사회적 상대성은 상대적으로 퇴조한 것이다. 문학의 사회적 상상력이 물러간 자리를 감각의 직접성과 동시성을 내세운 문화산업이 재빠르게 점령해 나갔고, 문학의 생산과 소통과 소비의 구조를 자본 권력의 논리에 따라 상업적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나날이 새로운 감각의 혁명을 요구하는 시대에 문학의 사회적 상상력을 말하는 것은 철지난 것처럼 보이며, 미적으로도 자칫 게을러 보이기 십상이다. 하지만 문학의 사회적 상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자본의 권력은 이전보다도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우리의 무의식과 일상적 삶을 정교하게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2000년대 이후 사회적 상상력을 통해 시적 사유를 펼치는 주요 시인으로서 최종천, 박후기, 하종오의 시를 표본으로 세계화에 따른 마이너리티 시학이 지니고 있는 시적 특성과 의미 양상을 조망하였다.

최종천의 시는 문학의 사회적 상상력과 비판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그의 시는 자본주의가 지닌 착취의 시스템을 파헤치고, 자연과 모성과 노동의 신성성 회복을 통한 근대적 가치의 전복을 꾀하려는 시적 전략을 펼친다. 그의 시에서 다소 거칠고 선전적이며, 계급적이고 정치적인 당파성의 직설적인 외침을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생활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시적 울림의 강화를 통해 스스로 발언하는 주체로서 저항의 동력을 생성한다. 그런 점에서 지구적 계급으로서 자본가 계급을 강화하는 체제에 저항하는 주체의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박후기의 시에 그려지는 마이너리티들의 삶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반전에 대한 믿음이 부재한다.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절망이 있고 현재를 반복할 불길한 미래가 있을 뿐이다. 그의 시는 가난이라는 형벌 같은 피의 유전, 세습의 신분처럼 물려받은 비루하고 비천한 삶의 극복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비등점까지 끌어올린다. 그럼으로써 은유적으로 제시한 지옥 같은 ‘링’ 위의 출구 없는 삶은 지금 이곳의 폭력성을 환기한다. ‘지옥의 링’으로 환유된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중심과 주변, 유력자와 약소자의 대립 관계를 형성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시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하종오의 시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질서의 재편과 경제적 위상의 변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이주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결혼이주 여성의 증가 등으로 파생하는 문제에 적극적인 시적 관심을 보인다. 세계화와 초국적 자본의 흐름에 의한 국경의 와해되는 현실에서 하종오의 시는 새로운 국제주의의 인구학은 탈식민지적 이주의 역사이자 문화적 정치적 이산의 서사라는 망명의 시학을 반영한다. 그럼으로써 단일 민족국가라는 순혈주의의 맹목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배제와 차별이 아닌 이질성이 지닌 차이를 존중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식민적 사유를 벗어나 탈식민적 사유와 차이에 대한 윤리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데 시적 의의가 있다.

한국문학은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여성·지역·생태·약소자·탈북자·조선족 결혼이주여성·외국인노동자 등 다양한 타자들의 목소리가 귀환하여 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세계화와 후기산업사회에서의 도시적 일상과 욕망 같은 영역을 문학의 영토 속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문학이 탐구해나갈 가능성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최중천, 박후기, 하종오 시의 사회적 상상력으로서 마이너리티 시학은 이전의 사회적 상상력이 간과한 현실의 세목과 다양한 모순, 새로운 시적 탐구의 가능성 등을 끌어안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의의를 갖는다. 특히 이들이 보여주는 마이너리티 시학은 유력자의 억압적 권력을 드러내면서 체제 밖에서 체제의 부정성을 증언한다. 윤리적 반성과 성찰의 과정을 거쳐 주체성을 획득하고, 이 윤리성과 주체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대의 틀을 모색함으로써 세계화 시대 정치의 중요한 특징인 상상조작에 저항한다는 데 시적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 최종천, 『눈물은 푸르다』, 시외시학사, 2002.
_____, 『나의 밥그릇이 빛난다』, 창비, 2007
_____, 『고양이의 마술』, 실천문학사, 2011
하종오, 『반대쪽 천국』, 문학동네, 2004.
_____, 『국경없는 공장』, 삶이 보이는 창, 2007.
_____, 『아시아계 한국인들』, 삶이 보이는 창, 2007.
박후기, 『종이는 나무의 유전자를 하고 있다』, 실천문학사, 2006.
_____, 『결렬비열도』, 실천문학사, 2015.
_____, 『엄마라는 공장 여자라는 감옥』, 가세, 2016.

2. 논저

- 고길섭, 『소수문화들의 정치학』, 문화과학사, 2000.
오창은, 「지구적 자본주의와 약소자들」,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2006
년 가을(통권 83호).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소나무, 1999.
車鳳禧, 『비판미학』, 문학과지성사, 1990.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A. 이스툼, 박인기 역, 『시와 담론』, 지식산업사, 1994.
B. 벡, 홍성태 역, 『위험사회』, 새물결, 1997.
D. 하비, 최병두 옮김, 『신자유주의』, 한울, 2014.
F. 제임슨, 여홍상·김영희 공역, 『변증법적 문학기론의 전개』, 창작과비
평사, 1984.
G.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

물결, 2008.

G. 들뢰즈 · F. 가타리, 이진경 역, 『카프카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동문선, 2001.

G. 들뢰즈 · F. 가타리, 김재인 역, 『천개의 고원』, 새물결, 2001.

H. K. 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사, 2002.

【Abstracts】

A Study on Globalization and Semantic Aspect of Minority Poem

— Focusing on the Poem

Choi, Jongcheon · Park, huki · Ha, jongo —

Kim Hong-jin

This paper illuminates how the life and consciousness of minorities are shaped under the capitalist rule. Thus, for this study, we measured the value of the poetic meaning. Minority in their poetry testifies to the negativity of the system, revealing the power of the powerful. And through this, we want to acquire subjectivity in the process of ethical reflection. Poets seek new frameworks of solidarity based on ethics and subjectivity. There by resisting symbolic manipulation, an important feature of modern politics. As Adorno has argued, lyrical poetry is inherently social. Lyrical poetry is an historical product reflecting society. Therefore, the autonomy of poetry should be focused on history, society, and a realistic found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minority poetry in relation to globalization. Minorities are those individuals who have been deported to the periphery of the capitalist system. The life of a person in a minority is close to a tragic destiny. The poetic interest in people in a minority thus directs the situation of inequality and alienation, oppression and exploitation, absurdity and contradiction,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The poets of social imagination related to minority are very cynical and critical.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problems caused by capitalism with a resistive and reflective attitude. Minority poetry exposes aspects of oppression and alienation, absurdity and contradiction,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inequality and exploitation, oppression and violence.

Key words : minority, Globalization, Subaltern, Violence of identity,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Imagination operation, Center and periphery

이 논문은 2017년 2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2월 2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2월 2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